교육의 새로운 지평 탐색:

변혁의 시대 속에서 관광 분야의 전공선택 및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한 통찰*

한진석**·김규미***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전공선택요인과 관광 관련 전공학과
2. 전공만족
3. 전공몰입
4. 진로결정효능감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2. 측정도구
3. 자료수집 및 분석

Ⅳ. 실증분석
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3.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가설검증

Ⅴ. 결론

* 본 논문은 2023년도 한국관광진흥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 동국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MICE관광산업연구소 연구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회의센터 연구교수, 교신저자(E-mail: kyumee0705@daum.net)

http://doi.org/10.34165/urban.r.2024..25.11

투고(접수)일 2024.4.1. 심사(수정)일 2024.5.20. 게재확정일 2024.6.17.

Ⅰ. 서론

진화하는 글로벌 교육환경에서 관광 분야는 중대한 변화의 교차로에 서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전례 없는 도전의 시작은 관광 부문의 교육 수요와 관련 직업에 대한 열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랩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방한 외국인 관광자는 47만 9248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전자신문 2023/4/19).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 모든 부문을 위험에 빠뜨렸지만, 특히 관광 산업에는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규미 2021; Nicola et al. 2020; Zenker and Kock 2020).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여행 제한 등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대응하는 원초적 방법과 전염병 억제를 위한 조치 과정에서 관광 수요는 큰 타격을 받았다(Kumar and Managi 2020; Worsnop 2019). 그러나 코로나19가 풍토병(Endemic: 엔데믹)으로 자리 잡으며 그동안 억눌렸던 사람들의 관광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규미 2022).

관광 수요의 증가와 함께 관광 산업 종사자의 고용 규모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관광 산업은 타 산업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탁월한 시장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년 기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광산업 유발 일자리가 11.9만 개 증발했으나(한국경제연구원 2020) 포스트 코로나로 관광 회복세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탈한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제때 돌아오지 못하면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제주의 소리 2021/12/13). 다양한 관광 분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산업 회복에 따라 관광 전문 인력의 채용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며 실제 인력 채용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Hotel & Restaurant 2023/2/25).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수요의 성장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관광 취업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즉, 세계화된 시장의 복잡성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관광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변혁의 시대 속에서 관광 산업의 활성화는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고용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인적 자원 의존도가 높은 관광 산업의 경우 관광에 대한 지식과 능력 및 성품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는 곧 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수급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광 관련 전공선택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연구는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광 관련 전공 특성상 친숙성이 높고 접근성이 좋은 전공으로 인식되고 있어 사전 정보나 지식 없이 관광 관련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들은 여행, 호텔, 이벤트, 항공, 문화유산, 레저 등 익숙한 분야의 직무에 대해 배울 수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함께 관광 관련 전공이 안정적이고 흥미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을 낮게 여긴다.

하지만 기존의 전공선택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의 입시제도와 전공선택에 있어서의 의사결정, 대학 진학 후 진로에 대한 문제의식, 취업의도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송지현·정은영 2020; 주영주·김동심 2014). 또한, 전공선택요인에 따라 불만족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전공에 몰입하지 못하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토로한다. 따라서 관광 관련 전공선택요인과 전공몰입 및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국내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초가 될 잠재 인력들(관광 관련 전공)을 대상으로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 본인의 의지 및 특성 등 어떤 요소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전공선택요인이 전공만족, 전공몰입 및 진로결정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광 분야 실무진 및 교육기관 담당자에게 새로운 시대를 정의하는 교육 변화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전공선택요인과 관광 관련 전공학과

전공선택요인은 전공선택 또는 학과선택이라는 개념으로 하여 학생들의 전공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요인으로 측정되고 있다.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10대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내리는 첫 번째 중요한 결정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적 관심, 태도, 친구 및 가족 등을 포함하여 선호, 적성, 미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전공선택에 영향을 미친다(Fouad et al. 2016). 전공선택 과정이 개인의 일생에 걸친 다각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들의 삶과 추후 진로결정효능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Amir and Gati 2006). 좋은 전공선택이라함은 자기평가,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능력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Betz 2007).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 전문 컨설팅 업체인 Maguire사는 신입생 유치(enrollment)와 유지(retention)를 위한 7년간 고등학교 학생 17,983명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 결과에서 고등학생들이 진학할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교육요인, 환경요인, 유의미한 타자요인, 특성요인, 이념요인, 성적요인으로 구분하였다(손준종 2002). 임미라·김윤민(2013)은 관광관련 전공선택요인이 학생 만족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선택 동기는 대학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갖는 요인으로 정의하였고 대학시설, 대학명성, 성적, 주변권유를

관광관련 전공선택요인으로 보았다.

한편, 2019년 4년제 대학에서는 경영학과 다음으로 관광전공학과가 가장 많았으며(연합뉴스 2019/9/14) 이러한 현상은 관광 관련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관광 산업의 발전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취업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관광 관련 전공을 선택하는 그것으로 보인다(한지숙 2021). 1964년 경기대학교 4년제 정규 학사과정으로 관광 관련 학과가 개설된 이후, 2021년 기준 159개 학교에서 정규 학위과정의 관광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많은 대학이 관광 관련 전공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 관련 전문 교육과 관광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 관련 학과의 특성상 과잉 공급으로 인한 높은 취업 문턱과 대학 졸업 후 실수요 대비 타 전공자와의 취업 경쟁 심화로 관광 관련 전공자의 취업이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홍미영·김정매 2021). 학생들 대부분이 전공에 대한 탐색이나 이해,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직업과 전공과의 연계성, 개인적 특성이나 관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친숙성이 높은 전공, 대학의 간판, 주변의 권유, 성적 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홍충선 2019). 이로 인해 많은 학생이 대학 진학 후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편입이나 전과 등 중도 포기를 한다는 연구 결과(김보균 외 2019)가 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관광 관련 전공 학과를 관광에 관한 학문적 이론을 토대로 관광 및 호텔 등 관광과 관련된 분야에서 요구되는 관광관련 전문지식 및 능력을 발휘하여 관광자의 접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 학과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전공선택요인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전공만족

전공만족은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로 가장 원하는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것으로 정의된다(Westermann et al. 1996). 그러나 단순히 학생들이 특정 과목을 선호하는 것을 넘어서, 학문 분야나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것은 단순히 원하는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전공 분야에서 깊은 학습과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공만족은 학생이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기술, 그리고 관련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전공만족은 학문 분야나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관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전공만족은 자신이 속한 전공학과 내에서 전공 및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축되며, 학생으로서 느끼는 자신의 역할이나 경험에 대한 즐거움 및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Lent et al. 2007). 이 과정을 통해 얻는 기분 좋은 감정 상태, 신념, 가치, 욕구 및 태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한예정·이종호 2013), 학업 성취도나 직업 적응력 등 다양한 요인에 만족감을 주며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사순절 2004; Sevet and Metz 2014).

이러한 전공만족은 대게 학과만족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Veenhoven(1996)은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두 가직 측면으로 정의하였다. 인지적 측면은 개인이 진로나 직업을 위해 설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현재 학과를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기대가 달성되었다고 인식하는 정도이고, 정서적 측면은 자신이 속한 학과에서 경험한 긍정적인 감정, 태도, 즐거움의 정도이다(정희영·박옥련 2009). 즉, 전공만족은 전공 선택 후 자신의 학습 경험에 대한 평가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이며(김태희·장경로 2007), 전공만족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가 전공을 선택한 후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여부로 평가된다(윤정헌 2013).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 하는 일은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파악하여 미래에 갖게 될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공만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Milsom과 Coughlin (2017)은 기회, 자기 인식, 직업 인식이 전공만족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라고 제시하며 의사결정 지향성(Leach and Patall 2013), 학문적 자기효능감(Garriott et al. 2015), 학습 자기효능감(Chukwuedo and Ogbuanya 2020) 등이 전공만족의 선행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전공만족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전공몰입(홍세명 2022; Kim and Kim 2017; Womack et al. 2018), 진로결정(류인평 외 2019; Kim and Kim 2017) 등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전공선택요인은 전공만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삶의 질에 만족으로도 이어진다(Lent and Brown 2019). 즉,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미래 직업의 장래성 등 외부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Barber et al. 2009). 또한 학생의 전공에 대한 의지적 자율성은 전공만족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Schenkenfelder et al. 2020) Pesch 외(2016) 연구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한 전공요인이 전공만족 및 직업 선택에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실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Madison 외(2018)는 매스컴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전공만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이정원(2022)은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한 호텔관광학과 대학생들의 전공선택요인 중 적성, 외국어, 취업이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최영민·이성근(2001)은 관광 분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식습득욕구, 진로선택욕구, 인격형성욕구는 전공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

며, 박무규·이은영(2023), 박영기·김민준(2022), 성은희(2019) 등의 연구자가 관광 분야 전공선택이 학업만족이나 전공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전공선택요인은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크게는 내부적 요인인 개인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인 사회적 요인임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전공선택요인은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전공선택요인 중 개인적 요인은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전공선택요인 중 사회적 요인은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전공몰입

전공몰입은 자신이 대학에서 전공하는 분야에 대하여 일체감을 느끼고 애착을 가지며 몰두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Emos 2008). 대학 수업에서의 몰입 경험은 학습에 대한 흥미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 즐거움, 자존감, 능력개발 등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Csikszentmihalyi et al. 2012). 이러한 몰입이 기술적으로만 숙련될 경우 학습자가 지루함을 느끼며 목표가 달성되면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숙련도에 따라 적절한 목표가 주어지면 최적의 경험 상태, 즉 몰입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김보경·김재동 2005). 몰입은 학생들이 직업 선택과 관련된 자기 인식, 지식, 기술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Bandura 1993). 이에 반해 전공몰입은 학생 신분의 유지와 관련된 전제 조건이며 전공에 몰입하지 못할 경우 대학 중퇴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Hagenauer et al. 2017).

한편, 전공몰입은 대학생의 전공선택요인과 전공만족에 대한 개인적 적합성의 역할과도 일치하는데, 적합성이 학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공몰입과 직업 선택에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음이 밝혀졌다(Porter and Umbach 2006).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과 재능에 밀접하게 부합하는 전공을 선택하고 해당 전공이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으며 발전가능성이 높은 미래 직업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전공에 만족하고 몰입하게 된다(Liao and Ji 2015).

또한,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이 많더라도 학습에 전념할 가능성이 높다(wach et al. 2016). Künsting and Lipowsky(2011)는 학생들이 자신이 가장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때 배움에 대한 내재적인 동기를 표현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전공만족도가 더 높은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전공만족은 학업성취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전공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낙제하거나 낮은 성적을 받거나 중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Wilkins et al. 2015). 상술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전공선택요인은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전공선택요인 중 개인적 요인은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전공선택요인 중 사회적 요인은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전공만족은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진로결정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은 대학생들의 진로개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진로결정에 필요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는 개인의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한다(Taylor and Betz 1983). 이러한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계획 및 탐색, 진로선택의지, 직업정체성 등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Rogers et al. 2008; Choi et al. 2012). 실제로 Lim and Loo(2003)는 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자신이 미래 직업에서 잘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Hambourger(2004)도 그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성공을 위한 가장 큰 기회를 얻기 위해 직업 관련 기술 및 지식에 대한 인지된 효능감을 기반으로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대학생들의 진로결정효능감이 향상되었을 때 다양한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높은 진로결정효능감은 일반적으로 직업 관련 업무를 유능하게 완료하는 개인의 자신감에 반영되며,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는 향후 직업 탐색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Betz and Voyten 1997). 이러한 진로결정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체계적인 교과과정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진로계획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진로선택에 대한 인지된 지식,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 직업 정체성 등이 크게 증가하였다(Thomas and McDaniel 2004).

전공선택요인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Garfinkel et al. 2005; Obschonka et al. 2012) 최동주(2021)는 외식 및 조리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재적 전공선택요인과 외재적 전공선택동기가 진로결정과 진로탐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밝혀내었다. 마찬가지로 민소라·홍성훈(2019)도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재적 동기보다 내재적 동기가 진로결정효능감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Liao and Ji(2015)도 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개인 및 직업 선호도에 따라 전공

을 선택할 때 진로결정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다.

한편,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자신감 부족은 학업성취와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Ocansey 2000). 류인평 외(2019)는 외식서비스 및 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에 만족하고 몰입하면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서비스품질이 중요함을 밝혀내었고, Liao and Ji(2015)는 만족스러운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만족이나 전공몰입이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진로결정효능감에 높은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공몰입도 학생들의 전공 및 진로선택과 관련된 자기 인식, 지식, 기술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직업을 탐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Bandura 1993). 이러한 기대는 Hambourger(2004)의 연구와 관련이 있는데 학생들이 성공을 위한 가장 큰 기회를 얻기 위해 직업 관련 기술 및 지식에 대해 인지된 효능감을 기반으로 진로를 결정함을 밝혀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3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전공선택요인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전공선택요인 중 개인적 요인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전공선택요인 중 사회적 요인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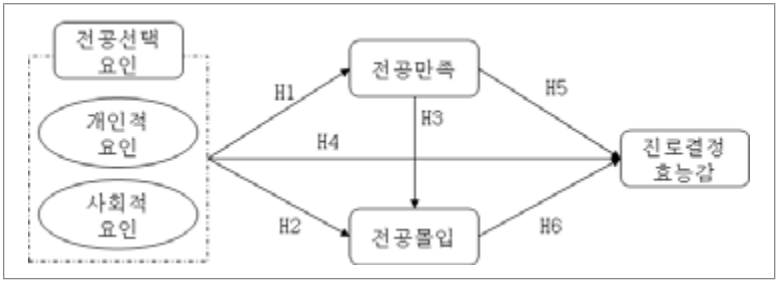
[가설5] 전공만족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전공몰입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상술한 이론적 고찰에 근거하여 전공선택요인, 전공만족, 전공몰입, 진로결정효능감 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신뢰성 및 타당성이 확보된 내용을 차용하였으며 [표 1]과 같다. 먼저 이정원(2002)은 적성, 외국어, 취업을 제시하였으며, Lent and Brown(2019)은 성별이나 문화와 같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특정 경험의 사회적 측면을, Pesch 외(2016)은 부모의 자율성지지, 진로 복지를 전공선택요인으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요인들을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보고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8개 항목을 재구성하였다. 최동주(2021)는 일반적 관심에 대한 전공만족과 사회적 인식에 대한 전공만족으로 만족도 요인을 설정하였고, Porter and Umbach(2019)는 수업 내

용, 난이도, 교수자의 지도 및 지원, 프로그램, 전공관련활동, 전공선택에 대한 만족으로 보았으며, Wach 외(2016) 연구자는 학습내용에 대한 만족, 학업 조건에 대한 만족 등으로 설정하였다. 류인평 외(2019)는 전공몰입 요인을 가치 실현, 전공분야에 대한 몰두, 흥미, 장래희망, 타인 전파 등으로 보았으며, Csikszentmihalyi et al.(2014)는 활동에 대한 집중, 시간의 응집능력, 목표의 명확성 인지, 완전한 몰두와 흥미를 느끼는 상태 등으로 몰입을 측정하였다. 민소라·홍성훈(2019)은 전공몰입에 대하여 자기평가, 직업정보, 계획수립, 목표설정, 문제해결의 요인으로 보았고, Tayor and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DMSES)[1]의 단축형을 근간으로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요인으로 보고 이를 근간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측정항목은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1] 구성개념에 따른 측정도구 및 출처

구성개념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출처
전공 선택 요인	개인적 특성 및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것	개인적요인	4문항	이정원 2002; Lent and Brown 2019; Pesch et al. 2016
		사회적요인	4문항	
전공 만족	선택한 전공에 후회하지 않는 긍정적인 감정	5문항		최동주 2021; Porter and Umbach 2006; Wach et al. 2016
전공 몰입	전공에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전공관련 활동에 자발적 행동을 취하는 상태	5문항		류인평 외 2019; Csikszentmihalyi et al. 2014
진로 결정 효능감	결정한 진로에 대한 스스로의 긍정적인 확신과 평가	5문항		민소라·홍성훈 2019; Tayor and Betz 1983
인구 통계	성별, 학제, 학년	3문항		연구자작성

1) CDMSE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3. 자료수집 및 분석

관광관련학과는 대부분 학부 내에서 호텔, 외식, 조리, 개발, 컨벤션, 통역, 항공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을 비롯해 전문대학에서도 점차 다양화·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목적에 따라 모집단의 전형(typicality)으로써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선정하기 위하여 (박원우 외 2010; Thompson 2006)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 4곳과 2년제 대학 3곳의 관광관련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2023년 5월 중순 약 1주간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확정된 설문 문항으로 본 조사를 하였다. 본 조사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중간고사 기간 사이에 비확률표본추출의 편의표본추출방식을 사용하였다. 조사 방법은 교강사에게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안내하고 각 대학의 수업 후 강의실 내에 응답자들을 모집하여 설문을 실시하는 집단조사 형태로 진행하였다. 총 347부를 배포 및 회수하였고 무성의한 대답이나 오류가 있는 문항을 제외한 유효한 설문지 328부(94.5%)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한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v. 22.0과 AMOS v.22.0을 사용하였고,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산출,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한 결과 남학생 114명(34.8%), 여학생 214명(65.2%)으로 나타났고, 학제는 2-3년제

159명(48.5%), 4년제 169명(51.5%)이었다. 학년은 1학년 106명(32.3%), 2학년 98명(29.2%), 3학년 65명(19.8%), 4학년 59명(18.0%) 응답자의 순이며 [표 2]와 같다.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대별	소별	명	%	대별	소별	명	%
성별	남학생	114	34.8	학년	1학년	106	32.3
	여학생	214	65.2		2학년	98	29.9
학제	2-3년제	159	48.5		3학년	65	19.8
	4년제	169	51.5		4학년	59	18.0
합계		328	100	합계		328	100

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변수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해 AMOS v. 22.0을 활용하였다. 먼저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여 내적 일치성에 관한 문항 간 신뢰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 요인(CR= .852), 사회적 요인(CR= .887), 전공만족(CR= .852), 전공몰입(CR= .917), 진로결정효능감(CR= .915)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결과 적합도 지수의 제한 기준(χ^2= 454.226, DF= 209, CMIN/DF= 2.173, p= .000, RMR= .035, CFI= .956, TLI= .947, IFI= .956, GFI= .896, AGFI= .863)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표 3]과 같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CFA)결과

요인		측정항목	β	S.E	CR	AVE
전공 선택 요인	개인적 요인	흥미 및 관심분야	.738	-	.852	.589
		개인의 적성	.787	.066		
		재능과 소질	.784	.080		
		수능 성적	.761	.086		
	사회적 요인	전공 직업의 장래성	.893	-	.887	.665
		대학의 사회적 인지도	.886	.043		
		취업 전망이 좋은 전공	.775	.047		
		졸업 후 생애 소득과 수입	.690	.052		
전공만족		공부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교수의 조언	.667	-	.852	.535
		교수-학생 간의 의사소통	.749	090		
		교과 내용의 흥미	.729	.094		
		전공과목의 취업 기회	.782	.106		
		졸업 후 회사생활에 도움	.726	.096		
전공몰입		전공 수업의 관심 및 흥미	.841	-	.917	.689
		전공 수업 자체에 대한 호기심	.813	.041		
		전공 수업의 의욕	.834	.060		
		전공 수업 참여 시 시간 흐름 인식	.843	.064		
		전공 과제에 대한 열의	.819	.065		
진로결정 효능감		전공분야 직무수행 시 자신감	.795	-	.915	.684
		계획 실행에 대한 믿음	.862	.065		
		전공이나 진로를 위한 노력	.808	.064		
		향후 5년간의 계획 수립 여부	.830	.062		
		관련기관이나 직업에 대한 정보	.839	.062		
χ2= 454.226, DF= 209, CMIN/DF= 2.173, p= .000, RMR= .035, CFI= .956, TLI= .947, IFI= .956, GFI= .896, AGFI= .863						

주) β: 표준화요인부하량, S.E: 오차, CR: 개념신뢰도, AVE: 분산추출지수

본 연구의 요인별 개념 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는 기준 값인 .7을 상회하여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의 값은 .5 이상의 값을 만족하여 내적 일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었다(Hair et al. 2000). 이와 함께 평균분산추출지수가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게 나타남으로써 판별 타당성도 확보되었고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변수 간 상관관계 및 분산추출지수 비교

구분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전공만족	전공몰입	진로결정 효능감	M±S.D
개인적요인	.589	.361	.401	.334	.466	3.320±.745
사회적요인	.601**	.665	.491	.377	.393	3.268±.802
전공만족	.633**	.701**	.535	.456	.389	3.296±.687
전공몰입	.578**	.614**	.675**	.689	.500	3.427±.758
진로결정 효능감	.683**	.627**	.624**	.707**	.684	3.285±.760

주) **p<.01
주) 대각선: 분산추출지수(AVE), 대각선 아래: 상관계수, 대각선 위: 상관계수 제곱값

3.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가설검증

가설검증을 시도하기 전 적합도 분석 결과 χ2= 668.605, DF= 220, CMIN/DF= 30398, p= .000, RMR= .048, CFI= .919, TLI= .907, IFI= .920, GFI= .852, AGFI= .814로 나타나 모형적합도의 권장기준을 충족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설 1의 전공선택요인과 전공만족 간의 관계 검증 결과, 개인적 요인(가설 1-1: β= .054, t= 4.575), 사회적 요인(가설 1-2: β= .047, t= .6.431)으로 나타났고, 가설 2의 전공선택요인과 전공몰입 간의 관계 검증 결과, 개인적 요인(가설 2-1: β= .075, t= 2.625), 사회적 요인(가설 2-2: β= .065, t= 3.075)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의 전공만족은 전공몰입(가설 3: β= .125, t= 5.043)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가설 4의 전공선택요인과 진로결정효능감 간의 관계 검증 결과, 개인적 요인(가설 4-1: β= .068, t= 6.136), 사회적 요인(가설 4-2: β= .055, t= 6.731)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가설 5의 전공만족은 진로결정효능감(가설 5: β= .053, t= 6.731), 가설 6의 전공몰입은 진로결정효능감(가설 6: β= .063, t= 6.269)로 나타나 모든 세부 가설이 지지되었다.

[표 5]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β	C.R.(t)	p	지지여부
가설 1	1-1	개인적 요인 → 전공만족	.054	4.575***	.000	지지
	1-2	사회적 요인 → 전공만족	.047	6.431***	.000	
가설 2	2-1	개인적 요인 → 전공몰입	.075	2.625**	.009	지지
	2-2	사회적 요인 → 전공몰입	.065	3.075**	.002	
가설 3		전공만족 → 전공몰입	.125	5.043***	.000	지지
가설 4	4-1	개인적 요인 → 진로결정효능감	.068	6.136***	.000	지지
	4-2	사회적 요인 → 진로결정효능감	.055	6.731*	.021	
가설 5		전공만족 → 진로결정효능감	.053	6.731***	.000	지지
가설 6		전공몰입 → 진로결정효능감	.063	6.269***	.000	지지

주) ***p<.001, **p<.01, *p<.05

V. 결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대부분을 변화시켰고 교육 분야도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받아들여야 할 시기이다. 그동안 억눌렸던 관광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감당할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KBS뉴스 2023/6/13). 본 연구는 급속한 변화와 끊임없이 진화하는 관광 산업 분야에서 학문적, 직업적 경로를 탐색할 때 작용하는 다면적인 역학에 조명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엔데믹(Endemic) 시대에는 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적 전략 또한 이에 맞추고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변혁의 시대 속에서 관광 산업의 요구에 맞춰 전공선택의 개인적·사회적 요인이 만족과 몰입, 그리고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6개의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으며 [가설 1] 전공선택요인이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이정원(2022), Madison et

al.(2018), Schenkenfelder et al.(202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교육기관은 이러한 개인적·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가설2] 전공선택요인이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김민준 외(2023), Porter and Umbach(2006), Liao and Ji(201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데 학생들의 전공선택 과정을 지원하고 자신의 관심과 목표에 부합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전공에 적극적으로 몰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설3] 전공만족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홍세명(2022), Wilkins et al.(201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학생이 수업 내용이나 교수진의 지도 등에 만족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여 전공에 대한 호기심과 참여도를 높여 몰입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가설4] 전공선택요인이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민소라·홍성훈(2019), 최동주(2021), Garfinkel et al.(2005), Obschonka et al.(201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즉 전공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들이 그 후의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관심사나 능력과 일치하는 전공을 선택하고 진로 결정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전공선택 과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가설5] 전공만족이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류인평 외(2019), Liao and Ji(2015), Ocansey(200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전공에 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전공만족도를 높이는데 집중함으로써 진로결정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설6] 전공몰입이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연국·양진희(2022), Hambourger(200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몰입이 높은 학생일수록 해당 분야에서의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더 높게 인식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의 전공몰입을 촉진하고 지원해야만 진로결정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전공선택요인의 개인적·사회적 요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면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고 이는 다시 전공에 몰입할 수 있게 되면서 결국엔 진로결정에 있어 개인의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검증을 토대로 먼저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전공선택요인이 전공만족, 전공몰입,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사회학적, 심리학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교육적 맥락에서 의사결정 및 행동 등과 관련된 기존의 이론적 틀에 기여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즉, 이러한 통합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선택과 관련된 사회 심리학 이론 및 교육 사회학 이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 선행연구들은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전공선택요인, 전공만족, 전공몰입 등의 선행요인들을 편협적이고 지엽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공선택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보고 향후 전공만족과 전공몰입을 통해 진로결정효능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향후 다차원적 측면을 이해하여 포괄적인 모델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교육기관에서는 전공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기반으로 전공몰입도를 향상시키는 커리큘럼을 조정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교과과정에 업계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체험 및 실습 학습 기회를 통합하는 공동프로젝트 등을 만든다면 전공몰입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경력 개발 프로그램 등의 도입을 통해 동료나 선배의 멘토링 프로그램, 인적 네트워크의 기회 등과 같은 워크숍 등은 진로결정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입시 지도 시 전공을 선택에 있어 개인적 요인과 사

회적 요인 모두를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개입을 시도한다. 즉, 전공선택요인을 바탕으로 맞춤형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생 개개인의 강점, 관점, 가치 및 기술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정보를 수집 후 개인 자신의 고유한 특성과 열망을 기반으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진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인증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결합함으로써 실무 역량에 부합하는 다재다능한 기술을 보유하도록 보장할 수 있으며 관광 사업이 직면한 실전 과제를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기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가설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것에 대하여 실질적인 유의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효과 크기와 결과의 실질적인 중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의 경우 2-3년제와 4년제를 통합한 표본으로 학제 간의 차이가 있으며 비확률 표본추출의 편의표본추출 방식에 따라 일반화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향후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한계점들을 개선한다면 연구의 결과가 달라지며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리라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교육 변혁의 시대를 헤쳐 나가면서 관광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탐구하는 여정에는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진화하는 관광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이 정보에 입각한 진로결정을 내리고 역동적인 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자신감을 갖추도록 하려면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포괄적 대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단순히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분야가 나아갈 미래의 흥미로운 기회에 대해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고, 도전하고, 준비시키는 교육 경험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규미. 2022.「'목적지 없는 비행'체험은 실제 관광체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코로나시대 관광체험의 본질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관광진흥연구 10(3): 143-166.

_____. 2021.「팬데믹 (Pandemic) 시대 관광 경험에 대한 주관성 연구: 춘천 캠핑장 방문객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19): 101-148.

김민준·윤지환·박영기. 2023.「관광관련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이 전공몰입과 직업가치관 그리고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경인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22(3): 149-167.

김보균·이효성·김홍범. 2019.「호텔관광 전공 졸업생들의 취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21(2): 61-74.

김재동·김보경. 2005.「컴퓨터 게임을 통한 학습의 몰입 관련변인이학업성취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1(3): 89-114.

김태희·장경로. 2007.「체육계열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 및 학과만족, 그리고 대학 및 직업위상에 대한 인식이 전공 관련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1: 69-78.

류인평·강동원·이재곤. 2019.「대학생의 교육서비스품질이 전공만족, 전공몰입,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ourism Research 44(3): 81-106.

민소라·홍성훈. 2019.「항공서비스학과의 전공 선택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5): 141-161.

박원우·손승연·박해신·박혜상. 2010.「적정 표본크기 (sample size) 결정을 위한 제언」. Seoul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1: 51-85.

손준종. 2002.「지방사립대학 신입생의 대학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연구 13(2): 49-73.

송지현·정은영. 2020.「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영향요인」. 한국웰니스학회지 15(1): 173-183.

유연국·양진희. 2022.「대학생의 전공몰입도가 진로탐색행동과 진로목표안정성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3(5): 2471-2486.

윤정헌. 2013.「관광전공 선택요인, 전공만족 및 학습태도와 성취도의 관계」. 관광레저연구 25(4): 239-257.

이정원. 2022.「COVID-19 팬데믹 상황을 경험한 호텔관광학과 대학생의 전공선

택동기가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 에듀테인먼트연구 4(4): 59-69.
임미라·김윤민. 2013.「관광관련전공 대학선택동기 가 학생만족 및 학교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27(2): 361-379.
정희영·박옥련. 2009.「미용전공 대학생의 가치관과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의 관계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0(1): 35-49.
주영주·김동심. 2014. 특성화고교생의 경제적 스트레스, 학교소속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학교만족도의 관계규명」. 교육과학연구 45(1): 73-95.
최동주. 2021.「외식·조리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몰입,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외식경영연구 24(3): 205-22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2020 기준 문화체육관광산업 통계」.
_____. 2021.「2021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
한예정·이종호. 2013.「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외식, 조리 전공」.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19(2): 76-92.
한지숙. 2021.「관광 관련 전공자들의 메타인지가 전공학습몰입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경영연구 25(2): 663-684.
홍미영·김정매. 2021.「관광전공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전공적합성의 매개효과. 관광진흥연구 9(3): 255-274.
홍세명. 2022.「항공서비스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외모만족도가 전공만족, 전공몰입,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진흥연구 10(2): 187-205.
홍충선. 2019.「관광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연구 23(5): 655-675.

Amir, T., & Gati, I. 2006. “Facets of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34(4): 483-503.
An, B. D, & Cho, K. D. 2017. “Influence of Self-learning Motivation,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the Psychosocial Quality of Life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1.” *International Information Institute (Tokyo). Information* 20(3B): 1971-1984.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Barber, L. K., Munz, D. C., Bagsby, P. G., & Grawitch, M. J. 2009. “When

does time perspective matter? Self-control as a moderator between time perspective and academic achieve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2): 250-253.

Betz, N. E., & Hackett, G.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5): 399.

Betz, N. E., & Vo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79-189.

Choi, B. Y., Park, H., Yang, E., Lee, S. K., Lee, Y., & Lee, S. M. 2012. "Understanding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 meta-analytic approach."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9(5): 443-460.

Csikszentmihalyi, M., Nakamura, J., & Csikszentmihalyi, M. 2014. "The concept of flow." *Flow and the foundations of positive psychology: the collected works of Mihaly Csikszentmihalyi* 239-263.

Eom, D. W. 2008. "The status and causes of early separation of college graduate newcomers: Focusing on the HRM perspective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1(2): 237-260.

Fouad, N. A., Ghosh, A., Chang, W. H., Figueiredo, C., & Bachhuber, T. 2016. "Career explorat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7(4): 460-464.

Garfinkel, P. E., Bagby, R. M., Schuller, D. R., Dickens, S. E., & Schulte, F. S. 2005. "Predictors of professional and personal satisfaction with a career in psychiatry."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0(6): 333-341.

Hair, J. F., W. C. Black, B. J. Babin & R. E. Anderson. 2010. *Multivariate date analysis*.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Hambourger, L. H. 2004. *Decision-making, gender, and field of academic major choice*.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Kim, K. M., & Kim, N. J. 2017. "Tourism college major and the relationships among choosing tourism as a major, major satisfaction and commitmen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2017(Dec): 706-717.

Kumar, S., & Managi, S. 2020. "Does stringency of lockdown affect air quality? Evidence from Indian cities." *Economics of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4(3): 481-502.

Lent, R. W., & Brown, S. D. 2019.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t 25: Empirical status of the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model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15, 103316.

Lent, R. W., Singley, D., Sheu, H. B., Schmidt, J. A., & Schmidt, L. C. 2007. "Relation of social-cognitive factors to academic satisfaction in engineering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1), 87-97.

Liao, C. N., & Ji, C. H. 2015. "The origin of major choice, academic commitment, and career-decision readiness among Taiwanese college studen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3(2): 156-170.

Nicola, M., Alsafi, Z., Sohrabi, C., Kerwan, A., Al-Jabir, A., Iosifidis, C., ... & Agha, R. 2020. "The socio-economic implications of the coronavirus pandemic (COVID-19)."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78: 185-193.

Obschonka, M., Silbereisen, R. K., & Schmitt-Rodermund, E. 2012. "Explaining entrepreneurial behavior: Dispositional personality traits, growth of personal entrepreneurial resources, and business idea generat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0(2): 178-190.

Ocansey, F. 2000. "Career compromise and adjustment among non-professional graduate teachers." *IFE Psychologia: An International Journal* 8(2): 84-95.

Pesch, K. M., Larson, L. M., & Surapaneni, S. 2016.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career well-being: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academic competence and volitional autonom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4(3) 497-512.

Porter, S. R., & Umbach, P. D. 2006. "College major choice: An analysis of person-environment fit."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7: 429-449.

Rogers, M. E., Creed, P. A., & Glendon, A. I. 2008. "The role of personality in adolescent career planning and explora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3(1): 132-142.

Schenkenfelder, M., Frickey, E. A., & Larson, L. M. 2020. "College

environment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Predicting academic major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7(2): 265.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Thomas, J. H., & McDaniel, C. R. 2004. "Effectiveness of a required course in career planning for psychology majors." *Teaching of Psychology* 31(1): 22-27.

Thompson, B. 2006. *Foundations of behavioral statistics: An insight-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Veenhoven, R. 1996. "Developments in satisfaction-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37: 1-46.

Wach, F. S., Karbach, J., Ruffing, S., Brunken, R., & Spinath, F. M. 2016. "University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academic studies: Personality and motivation matter." *Frontiers in psychology* 7, 55.

Westermann, R., Elke, H., Spies, K., & Trautwein, U. 1996. "Identifikation und Erfassung von Komponenten der Studienzufriedenheit." *Psychologie in Erziehung und Unterricht* 43: 1-22.

Womack, A., Leuty, M. E., Bullock-Yowell, E., & Mandracchia, J. T. 2018. "Understanding commitment: Relations between major commitment, satisfaction, involvement, fit, university commitment, and intention to qui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5(2): 166-182.

Worsnop, C. Z. 2019. "Concealing disease: trade and travel barriers and the timeliness of outbreak reporting."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20(4): 344-372.

Zenker, S., & Kock, F. 2020. "The coronavirus pandemic?A critical discussion of a tourism research agenda." *Tourism management* 81: 104164.

"면세업계도 '리오프닝' 누릴까…여행 성수기 '기대감'."전자신문. 2023.4.19.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092547?cds=news_my(검색일: 2023년 3월 15일)

"우리나라 대학에 가장 많은 학과는…경영학 계열 809개."연합뉴스. 2019.9.14.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0024400004(검색일: 2023년 3월 15일)

“외국인관광객 급감으로 일자리 11.9만 개 증발 우려.”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2020.9.15.https://www.keri.org/post/%EC%99%B8%EA%B5%AD%EC%9D%B8%EA%B4%80%EA%B4%91%EA%B0%9D-%EA%B8%89%EA%B0%90%EC%9C%BC%EB%A1%9C-%EC%9D%BC%EC%9E%90%EB%A6%AC-11-9%EB%A7%8C-%EA%B0-%9C-%EC%A6%9D%EB%B0%9C-%EC%9A%B0%EB%A0%A4(검색일: 2023년 3월 15일)

“코로나로 사라진 직원들...제주관광 회복세 ‘인력난 여전’”제주의 소리. 2021.12.13.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6463(검색일: 2023년 3월 22일)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관광 수요 급증···‘일할 사람 없어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97637(검색일: 2024년 1월 29일)

“2022년 싱가포르 호텔산업 현황 및 취업 동향.” Hotel & Restaurant.2023.2.25. http://www.hotelrestaurant.co.kr/mobile/article.html?no=11659

국 문 초 록

교육의 새로운 지평 탐색:

변혁의 시대 속에서 관광 분야의 전공선택 및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한 통찰

한진석(동국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MICE관광산업연구소 연구교수)
김규미(이화여자대학교 국제회의센터 연구교수)

본 연구는 향후 국내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초가 될 잠재 인력들(관광 관련 전공자)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의지 및 특성 등 어떤 요소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전공선택요인이 전공만족, 전공몰입 및 진로결정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년제와 4년제 대학에서 관광 관련 전공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고, 유효한 설문지 328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v.22와 AMOS v.22를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산출,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공선택요인은 전공만족, 전공몰입,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전공만족은 전공몰입과 진로결정효능감에, 전공몰입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관광 관련 전공 실무진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의 확장 및 이론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주제어: 전공선택요인, 전공만족, 전공몰입, 진로결정효능감

Abstract

Exploring New Horizons in Education:
Insights into Major Selection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in the Field of Tourism in an Era of Transformation

Han, Jinseok (Research Professor, Department of Hotel Tourism and Restaurant Management, Dongguk University)
Kim, Kyumee (Research Professor,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such as will and characteristics that are reflected when selecting a tourism major for tourism-related students, who will become the basis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domestic tourism industry, and to understand how major selection factors affect major satisfaction, major commitment,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students majoring in tourism at two- and four-year universities from October 10, 2023, to October 20, 2023, and 328 vali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v.22 and AMOS v.22.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calculation, and structural model analysis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hypotheses. Consequently, major selection factors were found to be antecedents affecting major satisfaction, commitment,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Additionally, major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major immersion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while major immers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areer decision efficacy. Based on these results, we present practical implications for tourism-related

majors and discuss the expansion of related research and its theoretical implications.

Key words: major selection factors, major satisfaction, major commitment, career decision efficacy